

## 1980년대 노동시의 정치성과 시적 수사\*

오 윤 정\*\*

### 차 례

- |                     |                       |
|---------------------|-----------------------|
| 1. 서론               | 3. 알레고리와 노동하는 육체      |
| 2. 대중화의 전략과 구술성의 언어 | 4. 결론-1980년대 노동시의 정치성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80년대 노동시의 시적 가치를 언어와 수사 등 형식미학적 특징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다른 시기의 리얼리즘 시의 양식이나 시적 수사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1980년대 노동시의 시적 언어나 설득의 수사와 같은 형식미학적 측면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에 이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1980년대 노동시는 기존의 시적 문법을 다시 쓰고 원래의 것에 의문을 던지며, 그것의 영역 밖에서 새로운 시 쓰기를 시도했다. 이들 시는 제도적인 사회적 위계질서와 역할을 의심하고 그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1000).

\*\* 인하대학교 프론티어학부대학 강사

자 하는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시어와는 다른 언어, 노동의 삶에 대한 생생한 묘사, 시적 인물과 상황을 부각하고 여성, 하층민을 아우르는 ‘노동자’라는 계급적 전형을 창조해 간 점, 그리고 그에 서사를 입힘으로써 공감과 참여라는 독자의 읽기를 유도한 점이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하다. 무엇보다 노동시의 정치성은 바로 감성적 불일치(불화)의 공간을 창조한 데 있다.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의 고백과 감정에 동요하게 하며, 계급적 깨달음과 각성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미학적 힘을 노동시는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시에 기존의 것, 지배문학, 엘리트 문학을 부정하는 반동일성의 정치성을 지향한다.

본고는 1980년대 노동시의 정치성을 노동시의 언어, 시적 수사와 같은 형식미학적 고찰로부터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는 ‘구술성’의 언어와 ‘육체’라는 알레고리의 문제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구술성은 이전 시의 문자성, 읽기 위한 텍스트성에 저항한다. 그들에게 살아 있는 시는 노동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 노동자의 감성과 언어를 들려주는 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설적으로 재현하는 시이다. 노동시의 구술성은 현장성을 강조하며, 독자의 공감과 참여를 직접적으로 설득한다. 또한 1980년대 노동시에서 독특하면서 독보적인 이미지는 ‘육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자의 힘과 노동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알레고리이다. 노동시의 ‘육체’는 모더니즘의 지성, 서정시의 감성과 대비되는 것으로, 1980년대 노동시는 노동자의 ‘육체’를 새롭게 알레고리화함으로써 노동의 삶을 형상화했다.

주제어 : 1980년대 노동시, 감성의 분할, 불화, 정치성, 형식미학, 구술성, 비속어, 알레고리, 육체, 수사학, 박노해, 박영근, 백무산, 김해화, 최명자

## 1. 서론

한국 현대시의 전개 과정에서 1980년대는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전후시에서 1960~70년대를 거친 시가 그 양적 확대를 모색하던 시기이고, 생산 주체가 전문적 창작인이 아닌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었던 때이다. 특히 창작 주체의 이와 같은 확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를 통해 주제, 이미지, 언어, 표현 등 시의 내용 및 형식적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창작 주체로 급부상한 노동자는 그들의 노동과 일상을 시의 소재로 삼았다. 현장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노동자의 서정에 집중하면서, 시라는 매개를 통해 자기 삶의 가치와 지향, 계급적 각성과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노동시에 대해 당대의 평자들은 ‘민중, 민족 문학의 요구’<sup>1)</sup> 혹은 ‘노동해방문학’<sup>2)</sup> 등으로 시적 성과를 평가했다. 채광석, 백낙청, 성민엽, 김명인, 최원식 등의 비평가들은 1980년대 노동시의 성과에 주목하고 그 새로움과 의미에 주의를 기울였다.<sup>3)</sup> 이들 논의에서 노동자라는 사회적 타자가 부각되고 그의 감성, 현실, 지향이 중요한 핵심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체험의 진실성이나 노동자의 계급성이 중요한 해석의 논점이 되었다.<sup>4)</sup> 그러나 한편으로 창작 주체, 그리고 그의 주제 의식에 한정

1) 백낙청, 『민족문학의 새 단계』, 『창작과 비평』 57, 1985. 10.

2) 조정환,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에 대한 자기비판과 <노동해방문학론>의 제창』, 『노동해방문학』 창간호, 1987. 4.

3) 1980년대 노동시에 관한 논의는 채광석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채광석은 노동시에 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박노해, 김해화, 백무산 등의 시집을 ‘풀빛출판사’에서 간행했다. 이후 『실천문학』이 간행되면서 다수의 시와 평론들이 발표되었다. 그 외 당대의 대표적인 논의로,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창작과비평사, 1982), 신승엽, 『노동문학의 현 단계』, 『전환기의 민족문학』(풀빛, 1987) 등이 있다.

4) 노동자라는 계급성을 통해 노동문학의 특징과 의의를 강조한 논의는 당시 노동문학론에서 대세의 것이다. 논자들은 노동문학을 “노동자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노동현실이나 노동문제를 묘사하되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그 극복을 지향하

된 기존의 평가와 연구는 그 이외의 읽기 및 접근법을 허용하지 않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진행된 노동시 연구는 이러한 기존 논의의 한계를 반성한다.<sup>5)</sup> 이들 연구는 주제나 주체 중심의 노동시 읽기에서 벗어나 문학으로서의 읽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노동시에 나타난 여러 문학적 특징과 기법에 주목하고 있다. 김나현은 박노해 시 등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미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들의 시에 ‘살아있는 이미지’(에크프라시스)가 나타나고, 이러한 이미지의 효과가 독자를 참여시키는 동력

---

는 문학”(신승엽, 위의 책, 158쪽)이라거나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이 획득되는 현실 과정에서 산출된 문학”(김경원, 『우리 시대 노동소설을 위하여』, 『문예중앙』, 1990. 9. 353쪽), “노동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노동자의 문제를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연관 속에서 취급한 문학”(이훈, 『노동자소설을 위하여』, 『문학과 비평』, 탐, 1989. 5. 351쪽)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민중문학을 ‘민중을 위한 문학’에서 ‘민중에 의한 문학’으로 논하고, “노동자·농민 등 기층 민중이 쓴 작품이 진정한 민중문학이며, 전문작가의 작품이란 아무리 민중 지향적 문학이라 하더라도 참된 의미에서는 소시민적 지식인의 문학에 불과하다.”(김병익, 『우리 문화: 가능성으로부터 실제화로』, 『열림과 일곱』, 문학과지성사, 1991. 64~65쪽) 라고 주장한다. 노동시 읽기에서 시인의 계급성에 대한 강조는 노동시집의 해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가? 노동시인이란 노동자시인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문학-삶-운동’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진실된 노동시의 문제는 ‘노동자라는 계급의 확고함’에 의해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권옥경, 『겨울밤을 살아내는 시』, 박영근, 『대열』(풀빛, 1985) 발문, 268~269쪽)

5) 1990년대 이후의 연구로 맹문재, 『한국 노동시의 문학사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7.; 맹문재, 『한국 민중시 문학사』, 박이정, 2001.; 이성혁, 『1980년대 노동시의 재인식』, 『실천문학』 82, 2006.; 최현식, 『‘시적인 것’으로서의 노동과 성, 그리고 스타일: 백무산과 장정일의 시』, 『민중문학연구』 50, 2012.; 박수빈, 『1980년대 노동문학 연구의 정치성』, 『상허학보』 37, 2013.; 정유화, 『<노동의 새벽>에 내재된 노동의 기호론적 의미』, 『우리문학연구』 44, 2014.; 김나현, 『노동시의 상상과 에크프라시스-1980년대 노동시 재독을 위한 시론』, 『비교한국학』 22권 3호, 2014.; 김나현, 『노동시의 일인칭』, 『상허학보』 50, 2017.; 양광준, 『1980년대 노동시의 수사기법 연구: 반복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8, 2010.; 장성규, 『수행성의 미학을 위한 텍스트의 전략들』, 『한국현대문학연구』 44, 2014.; 김난희, 『1980년대 노동시에 나타난 헤테로크로니』, 『기호학연구』 59, 2019. 등이 있다.

이 되었다고 고찰한다. 장성규 또한 『노동해방문학』을 텍스트로 삼아 이들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패러디의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성혁은 정동의 흐름을 통해 1980년대 노동시의 변화와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비애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이나 적대감으로 나아가는 정동의 이행은 노동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김난희의 논의는 ‘헤테로크로닉’이라는 용어를 통해 노동시의 미래 지향적인 시간성의 문제에 천착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1980년대 노동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시에 대한 당대, 혹은 이후의 논의가 지나치게 시인의 계급성, 시의 사회적 측면에만 주목하고 있음에 문제를 던지고 시의 형식, 정동, 시간성 등 다양한 읽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노동시에 대한 이러한 고무할 만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의 형식미학에 천착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동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논의는 당대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노동시 텍스트 자체에 주목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시적 화자나 시간성에 관한 연구 또한 크게는 시적 주체나 주제연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반복이나<sup>6)</sup> 패러디 등 시적 기법에 관한 연구<sup>7)</sup>가 진행되었으나 논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노동시 전반의 특징이나 미학에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1980년대 노동시의 시적 경향을 미학적으로 바라보고 그 특

6) 이와 관련하여 양광준 등의 논의가 있다. 양광준은 “바라보는 주체, 즉 당대 노동자계급의 인지능력에 부합하는 수사전략”으로서 반복이 사용되었다고 논의하고 있다. (양광준, 위의 논문, 319쪽) 이 논문은 노동시의 언어와 표현에 집중한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반복의 양상을 살피는 데 머물고 있어 노동시의 형식미학적 특징의 의의와 작동원리를 논의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7) 장성규는 1980년대 문학이 관습화된 엘리트층 문학의 개념을 위반하고자 하였으며, 그를 위해 지배적 문화양식의 급진적 패러디, 기호의 재배치 전략, 담화전략, 수행적 모순 전략과 같은 전략들을 구사했다고 논의한다. (장성규, 위의 논문, 631쪽)

정과 의미를 살펴야 할 때이다. 노동시 연구의 쟁점을 시인의 저항성이거나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시 자체로 옮겨와야 한다. 1980년대 노동시는 단지 어느 한 시기에 돌발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경향이 아니라 1920년대 시에서부터 1950~60년대의 참여시를 거쳐 변화하고 발전한 우리 문학사의 중요한 산물이다. 1980년대 노동시는 이전 리얼리즘 시의 시적 성과를 계승한다. 여기에는 대중성을 성취하고자 하는 형식미학이 내재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얼리즘 미학, 시적 언어와 수사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980년대 노동시의 시적 가치를 언어와 수사 등 형식미학적 특징을 통해 논하고자 한다. 다른 시기의 리얼리즘 시의 양식이나 시적 수사에 대한 연구<sup>8)</sup>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지만, 1980년대 노동시의 형식미학적 고찰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에 이르지 못했다. 1980년대 노동시는 어느 시기의 시작품보다 대중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였다. 많은 시들이 집회나 모임 등에서 낭송되었고, 노동자들 스스로 직접 창작하여 향유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대중성을 지향하고 자신의 주제의식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한 여러 시적 전략이 내재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랑시에르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작동원리를 감성의 영역에서 찾으면서, 정치와 미학이 감성적인 것을 나누고 구성하는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정치’는 “부분들과 몫들, 몫들의 부재가 정의되는 공간을 다시 짜는 일련의 행위”<sup>9)</sup>이며, 말과 소음, 가시적

8) 줄고, 『한국 현대 리얼리즘 시의 양식 연구』, 『우리말글』 38, 2006.; 장석원, 『리얼리즘 시의 발화특성』, 『비평문학』 43, 2012.; 이경수, 『해방 전후 안용만 시의 노동시로서의 가능성과 특징적 표현 기법』, 『한국시학연구』 47, 2016. 등이 있다.

9)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오윤성 역, 도서출판b, 2008. 13쪽. 그는 ‘감성’을 “자신에게 느끼게 하는 것을 결정짓는 선형적 형식들의 체계”(위의 책, 14쪽)로 논의한다. 감성은 이미 결정된 선형적 체계이며, 감성을 분할하는 것은 나눔, 분배, 배치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유동적이며 사회 구성적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감성의 분할’을 1980년대 시의 지향이자 특징으로 보았다.

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배분하는 분쟁적이면서 유동적인 과정이다. 기존의 질서에 대한 불화와 전복적 행위가 바로 문학의 정치성이라는 것이다.

본고는 ‘감성의 분할’의 정치성을 노동시의 언어, 형식미학적 특징에서부터 발견하고자 한다. 1980년대 노동시의 언어는 기존의 모더니즘, 문학의 엘리트주의, 민족주의적 서사를 부정하고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삶과 시의 분리선을 와해시킨다. 이는 ‘구술성’의 시적 언어와 ‘육체’라는 알레고리의 문제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구술성은 이전 시의 문자성, 읽기 위한 텍스트성에 저항한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시는 노동의 삶을 재현하고 노동자의 감성과 언어를 그대로 드러낸 시, 노동 현장에서 생산되고 향유되는 시이다. 또한 1980년대 노동시에서 독특하면서 독보적인 이미지는 ‘육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자의 힘과 가치를 보여주는 주요한 알레고리이다. 노동시의 ‘육체’는 모더니즘의 지성, 서정시의 감성과 대비되는 것으로, 1980년대 노동시는 노동자의 ‘육체’를 알레고리화함으로써 노동의 삶을 형상화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980년대 노동시<sup>10)</sup>가 당시의 시적 질서를 어떻게 전복하고자 했는지, 시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새로운 감성의 정치성을 미학적으로 창조했는가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노동시의 시적 효과 및 전략을 살핌으로써 1980년대 시에 전개된 리얼리즘 미학의 특징을 고찰하고, 나아가 1980년대 시에 대한 연구를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10) 연구의 대상 텍스트는 1980년대 노동시 전반이다. 주요 텍스트는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풀빛, 1984), 백무산의 『만국의 노동자여』(청사, 1988),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딛고』(노동문학사, 1990), 박영근의 『취업공고판 앞에서』(청사, 1984), 『대열』(풀빛, 1985), 그리고 김해화, 『인부수첩』(실천문학사, 1984), 최명자, 『우리들 소원』(풀빛, 1985) 등이다. 이외에도 정명자, 정인화 등의 시를 두루 살폈다.

## 2. 대중화의 전략과 구술성의 언어

일반적으로 구술성이란 문자성, 또는 기술성과 대비되는 말하기의 언어이다. 문자성이 논리적이며 기승전결의 정돈된 체계를 가지고 있고 학습이나 독서를 통해서 습득되는 지식의 언어라면, 구술성은 담화 형식의 즉흥적이고 청각적인 언어형식이다. 그것은 덧붙이는 말, 장황한 서술방식, 대화체의 활용, 구어적 호흡 단위에 기초한 운율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원초적이며 대중적인 말하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월터 옹은 많은 문화와 하위문화가 고도 기술문화를 접하면서도 한편으로 일차적인 구술성의 사고 양식을 상당히 간직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11)</sup>

특히 시는 노래, 악곡으로부터 발생했으며 그 안에 운율, 반복, 대구형식 등 다양한 구술적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들 시에 나타나는 구술성은 독자를 텍스트의 청자로 끌어들이므로써 대중성을 높이는 하나의 전략이 된다. 1980년대 노동시는 이와 같은 구술성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는데, 그 가운데 반복, 침언, 방언 등을 활용한 운율과 대화체에 주목할 수 있다.

속았능기라

속았능기라

.....

처음부터 우리는 속았능기라

11) 월터 옹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에서 구술성을 강렬하고 리드미컬한 패턴, 반복이나 대구, 두운과 유음, 형용구 또는 정형구적인 표현으로 논의한 바 있다.(위의 책, 57쪽 참조) 그가 말하는 구술문화의 사고와 표현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종속적이라기보다는 첨가적이다. 2.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집합적이다. 3. 장황하거나 '다변적'이다. 4.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이다. 5. 인간의 생활세계에 밀착된다. 6. 논쟁적인 어조가 강하다. 7.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이입적 혹은 참여적이다. 8. 향상성이 있다. 9.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상황 의존적이다. (위의 책, 60~92쪽)



좋다더라 좋다더라 돈 잘 번다더라  
 우리 나라에서 젤 큰 공장이라더라  
 아파트도 그저 주고 보나스도 많다더라  
 당신과 맞선 볼 때 마을 사람들 한입으로 부추겼제  
 당신 따라 노고재 넘어올 때 한껏 내 가슴 부풀었제  
 - 백무산, 『戰死』의 부분

먼저 이 시의 운율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각 시구를 네 개의 호흡 단위로 구분하면,

㉠속았능/기라/ 속았능/기라/.....  
 처음부터/ 우리는/ 속았능/기라  
 ㉡좋다더라/ 좋다더라/ 돈 잘/ 번다더라  
 우리나라에서/ 젤 큰/ 공장이라/더라/  
 아파트도/ 그저 주고/ 보나스도/ 많다더라/

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은 ‘속았다’라는 전언에 대한 강조를, ㉡의 시구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반복한다. ‘속았능기라/속았능기라’를 ‘속았능-기라’로 나누어 네 개의 마디로 구분함으로써 시구의 발화 속도를 늦추고 ‘속았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다시 말해 두 마디로 축박하게 발화될 수 있는 것을 시의 운율을 통해 네 개의 마디로 늘려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A-A-B-A(㉠:속았다-속았다-처음부터-속았다), A-A-B-B'-B"(㉡: 좋다더라-좋다더라-돈 잘 번다더라-젤 큰 공장이라더라-보나스도 많다더라)로 운율 구조를 만들면서 문장을 첨가하고 중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율은 이후 시의 마디들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이는 장황하고 다변적이며 첨가적인 말소리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탄처럼 이어지는 메시지의 반복, 그리고 말줄임표는 시의 전언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 안에 감추어진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며 그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 시의 운율은 ‘~능기라’, ‘~더라’, ‘~제’ 등 각운의 반복을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서술어의 각운은 문장 단위로 구사되어 있어 문장의 전언을 구분하는 운율적 표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각운이 방언이라는 점도 의미를 갖는다. 방언은 ‘~기라’, ‘~제’와 같이 종결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억양이나 악센트로도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방언으로 인해 시의 억양이나 강조점이 두드러지면서 발화의 구술적 특징이 강조되는 것이다.

‘나’라는 시적 화자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이러한 방언의 억양과 각운의 반복을 통해 담화 현장을 구성한다. 시적 화자의 독백적 담화를 따라 독자는 더욱 생생하게 시적 상황에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독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왜 ‘속았다’고 하는지, 속인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래서 당신과 나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재구성하며, ‘불안’, ‘이미 늦었제’와 같은 의미를 추측하고 ‘전사(戰死)’라는 제목을 통해 이후의 상황까지도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와 같이 1980년대 노동시에는 반복과 침언, 대화적 말하기, 언술 상황과 같은 다양한 담화적 특징이 나타난다. 방언이나 비속어, 대화체의 사용은 이러한 특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노동시는 실제로 많은 곳에서 낭송, 낭독되었다. 이전의 리얼리즘 시가 노래, 이야기의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시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과 유사하게, 1980년대 노동시는 담화의 구술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sup>12)</sup> 이에 시들은 노래로 창작되거나 노래가사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어느 곳에서든 쉽고 간단하게 외우고 낭송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화의 상황을 통해 담화의 여러

12) 1980년대 이전에도 구술성은 리얼리즘 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신경림이나 김지하 등의 시에서 민요, 판소리 등 전통 형식의 구술성을 차용한 것이 일례이다. 이들의 구술성은 서정적 언어, 반복과 관습적 언어, 리듬감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그에 반해 1980년대 노동시의 언어는 상당히 거친 입말을 사용하여 현장감과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는 입말의 특징인 침언, 중언부언, 반복을 주로 사용한다.

언어와 말하기 방식을 차용했다. 이는 시적 상황에 대한 생생한 전달과 진술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시적 화자의 감정이나 상황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동일한 통사구조나 유사한 문장, 어휘의 반복을 통해 시를 늘리는 방법이 되기도 하였다. 쉽게 문장을 구사하고 반복을 통해 그를 확장하는 방법은 1980년대 노동시의 중요한 예술적 특징 중 하나이다.<sup>13)</sup> 요컨대 이와 같은 구술성은 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낭송하는 것, 화자와 청자를 전제하여 말하고 듣는 시로 바꾸어 놓는다. 또한 비슷하고 유사한 음운이나 단어, 문장을 확장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을 획득하고, 다양한 상황이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1980년대 노동시의 이러한 구술성은 대사의 직접인용, 대화체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 “나홀 동안 단식을 했거든요.  
모두들 열심히 싸웠어요 / 잡범들도 신이 나서 박수를 치고……”  
웃음. 교도관도 따라 웃더니, / “……좌우간 3131번 땀에……어휴!”  
- 박영근, 「면회」의 부분

당신의 모습은 자주 바뀌는데  
어느 날은 초조하게 떨고 있는 모습이고  
큰 물소리같이 노래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찾아와  
“넌 꼭 이길 꺼임게 / 넌가 옳으니께……” 하고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 나를 찬찬히 바라보십니다.  
- 박영근, 「편지·3」의 부분

위 시들에는 대화가 직접인용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첫 인용시 「면

13) 노동자의 정서나 생활을 담을 수 있는 예술적 매체나 형식이 부족하던 시기, 노동자들은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하거나 본래의 시를 변형하여 확장하곤 했다. 예를 들어 1절이나 1연으로 이루어진 노래나 시에, 2절 이상의 가사를 붙여 개사함으로써 많은 이야기나 상황을 말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회』에서는 면회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면회자, 피면회자, 교도관의 대화가 교차적으로 인용되어 제시된다. 직접인용 표시라든가, 말줄임표, ‘웃음’과 같은 동작 표시, ‘어휴!’라는 감탄사 등, 대화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말하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시는 생생하게 ‘면회 현장’을 재현하고, 각각의 대화를 생동감 있게 제시한다.

‘숙에게’란 서두로 시작하고 있는 『편지·3』 또한 구술성이 돋보이는 시이다. 이는 ‘숙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편지글의 형식이 갖는 경어체나 구어체가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당신’이라는 2인칭의 호칭이나 말줄임표 등은 말하기의 직접성이나 시간적 휴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꿈의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면서 꿈속에서 이루어진 어머니와의 대화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함으로써 구술적 효과를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대화의 직접적인 활용이 대화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한편, 그 안에 내러티브의 구체적인 국면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근의 『면회』는 면회의 상황이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적 인물을 화자가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 인물의 대화를 통해 면회 공간, 면회에서의 대화 상황에 대해 전달한다. 여기서 독자는 그러한 대화를 듣는 자이며 ‘웃음’이나 감탄사 등과 같은 표지를 통해 대화자들의 감정을 전달받기도 한다. 대화체의 활용은 시에 내러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적 상황이나 현장감의 읽기 효과를 높이는 한편 화자와 청자, 인물 간의 상호작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동시에 시적 화자의 독백을 전달하는 서정시에 비해 여러 인물들의 감정이나 상황을 들려줄 수 있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80년대 노동시에는 이같이 대화체, 서간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박영근, 『최후진술』)도 자주 나타난다. 이들 시는 모두 구어적인 글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형식이 모두 말하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경어체, 웃음소리, 화자와 청자의 설정, 구술적 언어들만 말하

기의 청각적 효과를 자극하면서 독자를 시 안으로 견인한다. 이와 같은 구술성은 독자로 하여금 시적 화자의 상황에 주목하게 하고, 시적 화자의 감정이나 주제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술성은 대중적이고 민중적인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문자가 읽기나 해석 능력을 기반으로 한 지적인 지배계층의 언어라면, 구술성은 집합적이고 대화적이며 대중적인 언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술적 언어는 대화 상황을 강조하는 한편 생생한 말 언어를 그대로 발화 하기도 하는데, 이를 비속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헌데 저 뱀새눈은 웬일로 달려오는거나  
 절구통 같은 납작키에  
 삼 년 묵은 똥색 완장을 두르고  
 지가 무슨 사장이라고 홀리딩 까진 민머리를 자우똥거리며  
 무슨 말인지 콩알콩알 메기입으로  
 침을 튀기며 오는거나  
 뱅글뱅글 돌아가는 저 뱀새눈

“어떤 씨발 놈이야? 나와 개새끼들!  
 벨소리 울기 전에 튼 놈들 나와, 씨발놈들!  
 조희 때마다 인간적인 말투다 강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개새끼들!  
 작업 시간에는 변소간으로 새서는 담배나 빨구 앉아 있고  
 잔업 하라고 시키면 술술술 빠져서 술잔이나 빨구  
 ……너, 너, 너, 너!  
 회사를 느들 장기판으로 아는 모양인데……  
 필요 없어, 당장 사표 쓰고 꺼져, 알아!”

- 박영근, 『배출출이』의 부분

난 어차피 쌍년이고 개 같은 년이며  
 못 배운 차장년이다  
 이왕 씹어먹는 김에 / 나도 할말 좀 하여야겠으니  
 새겨서 들고 먹어 봐라 인간들아

대학 나와 펜대 잡고 뿔 좀 안다 떠드는 놈들  
 그대 뿔 그리 많이 알아 이루었고  
 어떻게 배워 행동하였기에 / 나라꼴은 요 모양이고  
 민중은 일에 허기에 시달리느냐

- 최명자, 『내친 김에 쏟아 놓으리니』의 부분

비속어는 공적인 언어가 아니다. 실제로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시민이 아니라 공적인 언어에서도 배제적인 것이다. 노동시의 비속어는 노동자의 정서와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구어적이고 일상적인 언어 관습이다. 위의 인용시들은 시 안에 낯것으로서의 비속어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공적 언어에 대한 거부와 조롱을 전면화한다.<sup>14)</sup>

박영근의 위 시에서 ‘비속어’는 현장감과 사실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사장(혹은 그의 대리인)은 ‘뱀새눈, 납작키, 민머리, 메기입’과 같은 비속어를 통해 희화화되며, 이는 직접적인 대사 인용, 행동 묘사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비속어의 표현들은 ‘뱀새눈’을 수식하는 ‘절구통같은 납작키에/삼 년 묵은 똥색 완장을 두르고/홀러딩 까진 민머리를 짜우똥거리며/무슨 말인지 콩알콩알 메기입으로/침을 튀기며’와 같은 수식어로 중첩 확장된다. 특히 이 시에서 활용하는 동작 묘사, 대사의 직접적인 제시 등은 질편한 육지거리와 조롱의 시어들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눈앞에서 보는 듯 직접적으로 상황을 묘사한다. 또한 ‘!’로 전달되는 강한 악센트, ‘~구’와 같은 구어적 연결어, 그리고 ‘너, 너, 너, 너!’와 같은 대사 등은 대화 상황에서 직접 대상을 지시하는 것과 같은 말하기의 현장감을 드러낸다.

다음 최명자의 『내친 김에 쏟아 놓으리니』에서도 비속어는 가감 없이

14) 비속어는 적대자나 적의를 품은 자 또는 증오스런 자를 패퇴시키거나 굴복시키기 위해 던지는 거친 말, 어구, 그 사회에서 비천하고 야비하다고 여겨지는 말이다. 그것은 대상에게 충격을 주는 요법이다.(이병혁, 『한국인의 욕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 『라강과 현대정신분석』 8, 2006. 143~144쪽.)

노출된다. 이 시에서 버스안내원인 시적 화자는 ‘개문발차’라는 차 사고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이 사고에 얽힌 자는 운전자, 피해자, 회사, 본인이다. 이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자 욕지거리를 퍼붓는다. 이 시에서 사용되는 비속어는 이와 같은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줄지에 사고처리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방언과 비속어 등은 일상의 언어와 대화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구술적 특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무엇보다 시와 출판과정에서 이러한 비속어를 그대로 남겨놓은 것은 비속어가 갖는 구어적 특성 때문이며 노동 현장에 대한 생생한 재현과 노동자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비속어가 무엇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속어는 시적 언어의 숭고함, 교양을 거부하고 뛰어넘는 언어 방식이다. 그것은 정제되고 정돈된 읽기 위한 기술적 언어가 아니다. “말로 행해지는 힘, 곧 말의 힘”<sup>15)</sup>에 주목하는 말 언어로서, 노동자의 언어를 재현하면서 엘리트적인 지적 언어, 기록언어에 대한 도전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예술적 관습을 재고하고 전복하며 뛰어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계급적 방언을 창조한다. 이는 노동자의 개인 언어를 뛰어넘어 계급 전체의 언어를 창조하는 데 기여한다.

15) 조르조 아감벤, 『언어의 성사』, 정문영 역, 새물결, 2012. 532쪽. 아감벤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의 언어(방언, 일상어)를 국가의 언어(교양용 언어)로 통합했던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자면 1980년대 노동시의 입말들은 당시의 국가의 언어, 다시 말해 지적 언어 혹은 표준어에 반하는 민중의 언어로서 기능한다. 그런 점에서 입말, 은어나 속어, 방언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일종의 “해방(시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조르조 아감벤, 『목적없는 수단』, 김상운·양창렬 역, 도서출판 난장, 2009. 79~80쪽)

### 3. 알레고리와 노동하는 육체

노동시는 알레고리의 수사를 전면화한다. 알레고리는 속뜻을 감추고 다른 사물을 내세워 감추어진 속뜻을 환기하는 표현 방법이다.<sup>16)</sup>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1의 관계를 보여주며 그 사이의 필연적인 동일성을 추구하는 알레고리는 독자의 적극적인 읽기를 전제한다. 독자는 알레고리의 언어를 자신의 언어 관습이나 배경지식을 통해 해석하고 그 안에 생략된 의미를 채워 넣는 역할을 담당한다. 알레고리의 노골적인 숨은 뜻을 알아채고 그를 읽어내는 독자의 독서 과정을 통해 알레고리의 진정한 효과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과정은 읽기 집단 간 공통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처럼 알레고리는 독자의 해석과정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대중화의 전략이 된다.<sup>17)</sup>

1980년대 노동시의 주요한 특징은 바로 ‘육체’에 대한 강조이다. 이는

16) 알레고리는 “행위자와 행동, 혹은 배경이 축적적이거나 일차적 수준에서 일관된 의미를 구성하고, 또 행위자와 개념이 사건의 이차적이고 상호 연관적인 수준을 의미하도록 고안된 형식”(M.H. Abrams, 『문학용어사전』, 최상규 역, 진성출판사, 1991)으로 규정되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개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하거나 어떤 개념을 형태의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비유적인 표현법이다.(정끝별, 『현대시에 나타난 알레고리의 특징과 유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 2003. 306쪽) 특히 벤야민은 상징의 허위적 총체성을 거부하고 현실과 이상, 현상과 본질의 불일치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표현법으로서 알레고리에 주목했다. 알레고리가 파편화된 불연속적인 세계에 대한 내적 체험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대문자 역사를 해체하고 있다는 것이다.(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최성만·김유동 역, 한길사, 2009. 247쪽 참고)

17) 그런 점에서 노동시의 알레고리는 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적이며 보편적이다. 알레고리는 그 문화권, 혹은 문화적 상황에 익숙한 독자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이러니나 은유 등 기타 비유가 독창적이고 개성적이며 그런 점에서 난해한 데 비해, 알레고리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단일하고 보편적이다. 그런 이유로 학자들은 알레고리를 다른 수사법에 비해 일차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알레고리를 대중화의 전략, 독자의 읽기를 견인하는 중요한 리얼리즘 시의 양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계급적 상황이나 현실, 노동 현장과 관련되면서 ‘노동하는 육체’로 알려고리화된다. 그것은 이중적으로 제시된다. ‘노동하는 육체’는 노동의 힘과 강렬함, 저항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급적 폭력에 의해 절단되거나 훼손된 것이기도 하다.<sup>18)</sup> 1980년대 노동 시인들은 이같이 노동하는 육체와 절단된 육체를 대비함으로써 노동계급의 건강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배계급의 잔인한 폭력성과 노동자 소외의 현실을 강조했다.

살 속에 말이 있다 / 살은 스스로 말을 한다  
어설플 이성은 그 말을 막는다

노동의 근육 속에는 말이 있다 / 그것은 살과 살의 대화다  
뼈와 살의 대화다 / 남의 살과 나의 살의 대화다

- 백무산, 『노동의 근육』의 부분

시골 영감 지게는 / 몸의 일부다  
장에 갈 때도 빈 지게로 / 마실을 갈 때도 빈 지게를 지고 간다  
지게를 벗으면 허전하다 한다  
장에 가서 소 판 돈 지게에 매달아 오고  
할망구 구리무도 지게에 얹어서 온다  
돌아오는 길 소똥 말똥 주워 얹어 오는  
지게는 요즘 말로 핸드백 구실도 하지만  
위급할 땐 지게 막대기는 늑대와도 맞선다  
아전배들 후려패어 내쫓던 것도 지게 막대기다

- 백무산, 『공구와 무기 · 1-지게차』의 부분

18) 1980년대 노동시에 나타나는 노동은 이중적이다. 랑시에르의 말을 빌리면 노동자 시인에게 노동은 ‘소명’이자 ‘직업’으로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세상을 일구고 변혁하고 건설하는 소명을 가진 주체이자, 자본의 억압에 굴복하고 파괴되는 소외의 대상이기도 하다. (랑시에르, 『프롤레타리아의 밤』, 안준범 역, 문학동네, 2020. 26~33쪽 참조)

먼저 첫 번째 인용시는 두 가지 시어의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살’, 즉 ‘노동의 근육’이며, 다른 하나는 ‘어설피 이성’이다. 이를 구성하는 시어들을 나누어 살펴보면

㉠살: 말, 대화, 남과 나의 대화, 창조

㉡이성: 어설피 이성, 독재, 지배

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비는 우선 기존의 일반적인 통념을 뒤엎는다. 이성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시에서는 ‘어설피’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온전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살은 대화를 만들고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주체이다. 이로써 타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창조의 근원으로서의 ‘살’, 곧 육체는 인간의 노동을 대변하는 산물이다. 이 시 안에는 이같이 살, 노동, 육체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어설피 이성’에 대한 비판이 내재해 있다. 전자는 긍정적 가치를, 후자는 부정적 가치를 전면화한다.

다음의 『공구와 무기』 연작에서도 지게차, 망치, 몽키, 톱 등 인간 육체와 동일시된 도구들이 소재로 제시된다. 이들 연작시에 나타나는 도구는 육체의 한 변형태이다. 도구는 인간(노동자)의 육체에 각인되어 있고 노동자의 육체와 같이 물건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는 주체들이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 위 인용시에서도 ‘시골 영감 지게’는 ‘몸의 일부’이다. 지게는 단순한 도구의 기능을 넘어 ‘마실을 갈 때도’, ‘장에’ 갈 때도 가지고 가는 ‘핸드백’이기도 하고, 늑대와도 맞서고 아전배들 내쫓던 ‘지게 막대기’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도구’는 물건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의 방법이자 수단이라는 점에서 ‘도구’는 본질이나 목적보다 하위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시에서 도구는 인간과 일체화된 것이다. 도구는 단지 방법이나 수단의 의미에 머물지 않고, 고유의 의미를 가진 것, 인간 몸의 일부가 된 것, 즉 인간의 육체와 동일화된다. 그 안에는 하찮은 것에 불과했던 것을 중요한 것으로 끌어올리는 사유의 전환이 내재해 있

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 도구처럼 사용되던 노동자의 가치 또한 재고된다. 우리는 ‘길들지 않은 노동으로/ 건강한 혁명’(김해화, 『인부수첩·1-우리 들은』)을 창조할 수 있는 주체이다. 노동자는 재화를 생산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꾸는 ‘주체’인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백무산의 『노동의 근육』을 환기한다면, 이는 우리가 ‘어설픈 이성’이 아닌 ‘노동의 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노동시에서 ‘육체’는 인간 본연의 것이며 진실한 것이고, 나아가 노동자의 건강함과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레고리화된다.<sup>19)</sup> 육체가 이전의 의미를 전복하고 그와는 대립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긴 공장의 밤 / 시린 어깨 위로 / 피로가 한파처럼 몰려온다  
드르륵 득득 / 미싱을 타고, 꿈결 같은 미싱을 타고  
두 알의 타이밍으로 철야를 버티는 / 시다의 언 손으로  
장밋빛 꿈을 잘라 / 이를 수 없는 헛된 꿈을 짝둑 잘라  
피 흐르는 가족분을 미싱대에 올린다 / 끝도 없이 올린다

아직은 시다 / 미싱대에 오르고 싶다 / 미싱을 타고  
장군처럼 당당한 얼굴로 미싱을 타고  
언 몸둥어리 감싸 줄 / 따스한 옷을 만들고 싶다  
찢겨진 살림을 잡고 싶다

- 박노해, 『시다의 꿈』의 부분

19) 1980년대 민중미술은 이와 같은 인간의 육체, 노동의 힘, 그의 근원적 본질 등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망치’나 ‘낫’과 같이 노동자의 계급성, 민중의 저항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엠블럼으로 기능한다. 울퉁불퉁한 근육, 흠뻑 눈, 역동적인 인간 육체의 움직임은 단순한 묘사나 은유를 넘어 “의미 내용을 눈에 띄게”(벤야민, 앞의 책, 347면) 드러내는 알레고리적 사물이 된다. 성완경은 이들 민중미술이 ‘기계-야수적인 것’과 ‘무장된 전투성, 남근적 공격성’의 그로테스크한 면을 지니고 있다고 논의한다.(박현화, 『민중미술에 차용된 대중문화의 양상: 알레고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2, 2011. 8. 438쪽에서 재인용)

시대의 현실과 꿈을 그리고 있는 이 시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시다’와 ‘미싱’, 즉 인간과 도구의 동일성이다. 시다는 자신의 ‘장밋빛 꿈을 잘라’ 미싱대에 올린다. ‘장밋빛 꿈’은 이를 수 없는 ‘헛된 꿈’이고, 그런 점에서 ‘피 흐르는 가죽본’이 된다. 시적 화자는 ‘장군처럼 당당한 얼굴로’ 미싱을 타고 ‘장밋빛 꿈’을 꾸고 싶지만, 시다 앞에 놓인 현실은 ‘왜소’하고 ‘찬바람 치는’ 공단 거리일 뿐이다. 시다인 시적 화자는 ‘피로가 한파처럼’ 몰려오는 ‘긴 공장의/시린’ 밤에 서 있고, ‘두 알의 타이밍으로 철야를 버티고’ 있다. 시다의 꿈은 ‘가죽본’처럼 잘려 미싱대 위에 놓인다.

그를 둘러싼 좁고 피로한 노동의 시간은 미싱을 타는 과정을 통해 극복된다. 시다는 미싱대에 자신의 꿈을 올리고 그를 깎는다. 미싱이 잘린 옷감을 깎고 연결하듯 시다의 꿈은 미싱을 타고 자신과 세계를 깎고 연결한다. 여기에서 미싱과 시다는 하나로 연결된 존재이다. 미싱을 타는 인간이 바로 ‘시다’이며, 미싱은 시다의 꿈을 연결해가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다:미싱]은 [도구의 주체:도구의 객체]의 관계이지만, 미싱이 시다의 꿈을 하나로 기워간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객의 관계는 [미싱:시다]로 역전되기도 한다. 즉 사람과 도구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뛰어넘어 환원적인 존재, 혹은 동일한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공구]와 같은 등식에 기초한 백무산의 「공구와 무기」 연작과 다르지 않다. 이들 시는 인간이 하나의 도구나 방편으로 소외되는 사회, 그리고 한편으로 소외된 존재들—도구로서의 인간과 도구 그 자체 사이의 연대와 공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육체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부정되는 상황에 이른다. 자본주의에 의해 억압된 육체는 노동시에서 다양한 변이체를 갖는데, 앞의 시에서처럼 ‘피 흐르는 가죽본’이거나 ‘정신없이 알을 낳다가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면서 켄터키 치킨이 되는 양계장 닭’, ‘수천 번이고 로봇처럼 반복동작하는 기계’(박노해, 「어쩌면」), 혹은 ‘때리면 돌아가는 팽

이, 거대한 탈수기 속에서 쥐어짜지는 빨래'(박노해, 「멈출 수 없지」)가 그것이다.

평생토록 죄진 적 없이 / 이 손으로 우리 식구 먹여 살리고 / 수출품을 생산해 온 / 검고 투박한 자랑스런 손을 들어 / 지문을 찍는다 / 아 / 없어, 선명하게 / 없어, / 노동 속에 문드러져 / 너와 나 사람마다 다르다는 / 지문이 나오지를 않아 / 없어, 정형도 이형도 문형도 / 사라져 버렸어 / 임석 경찰은 화를 내도 / 긴 노동 속에 / 물 건너간 수출품 속에 묻혀 / 지문도, 청춘도, 존재마저 / 사라져 버렸나 봐

- 박노해, 「지문을 부른다」의 부분

올 어린이날만은 /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 어린이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 손목이 날아갔다

작업복을 입었다고 / 사장님의 그라나다 승용차도 / 공장장님 로얄살롱도 / 부장님 스텔라도 태워 주지 않아 / 한참 피를 흘린 후에 / 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에 갔다

기계 사이에 끼어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 기름 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어 / 36년 한 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잇는다

- 박노해, 「손무덤」의 부분

이들 시에서 노동자의 육체는 훼손된 것으로 나타난다. 첫 인용시 「지문을 부른다」에서는 ‘지문’이 사라져 버린 현실을, 「손무덤」에서는 ‘손목이 날아간’ 사건을 대상으로 시가 전개되어 있다. 실제로 1980년대 노동시에 이같이 잘리거나 사라지거나 죽은 육체<sup>20)</sup>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

20) 벤야민은 바로크 비애극을 분석하면서, 비애극에 나타나는 ‘시체’에 주목했다. 인물의 육체는 시체가 되었을 때 앰블럼적 소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불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체를 위하여 인물들은 몰락한다.” 벤야민, 앞의 책, 326쪽) 여기에서 앰블럼으로서의 시체는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힌다. 이와 동일하게 1980년대 노동시에서도 훼손된 육체는 자본주의에 의해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

장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훼손된 육체는 ‘긴 노동, 물건너가는 수출품’ 속에 파묻혀 버린 것이며, ‘작업복을 입었다’고 관리자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로 인한 것이다. 결국 인간의 고유성이나 가족이라는 개인의 존재를 상실해가는 과정은 이와 같은 착취나 소외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장님의 그라나다 승용차, 공장장님 로얄살롱, 부장님 스텔라’와는 대비되는 ‘타이탄 짐칸’은 노동자의 위치나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것은 세계와 나, 자본과 노동,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의 불화의 상태를 대조적으로 드러낸다. ‘일하는 손, 노동자의 피땀’과 ‘착취의 손, 놓고 먹는 하얀 손’의 대비를 통해 노동과 자본이 불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 시에 나타나는 훼손된 육체는 온전함에 대한 지향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자본, 소외된 인간상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전면화한다.

여기에서 노동자는 “내가 들고 있는 그라인더로는/도저히 갈아 없앨 수 없는” 세상(김해화, 『인부수첩』 23)을 각성하는 주체이다. 그런 점에서 『손무덤』 마지막 연의 ‘손을 묻는’ 행위는 좌절이나 실패의 의미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희생된 노동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애도와 위안이자, ‘기쁨의 손짓으로 살아날’ 그날을 위한 다짐의 행위이다. 노동하는 육체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는 노동이 갖는 가치와 의미에 대한 재확인이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염원과 노동자의 투쟁을 예고한다.

#### 4. 결론 - 1980년대 노동시의 정치성

본고는 1980년대 노동시의 미학적 특징과 감각의 분할이라는 정치성에 주목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논하고자 하였다. 시의 정치성은

---

회, 자본주의의 폐허화된 공간, 훼손된 가치를 나타내면서 하나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알레고리가 된다.

선형적 형식으로서의 기존의 감성, 시적 정의에 의문을 던지고 이를 새로 써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기존의 감성이나 문화, 관념을 새롭게 재편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그 미학적 성취가 바로 문학의 정치성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이는 사유의 변동, 정치 사회적 동인, 새로운 미디어나 매체의 발달 등 다양한 변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1980년대 노동시의 출현은 현대 시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이는 기존의 미적 관습을 거부한 새로운 창작계층의 출현을 예고하고, 직정적 이미지와 낭독에 적합한 구술적 언어를 사용하며 ‘육체’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노동의 가치와 신성함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1980년대는 시를 일반대중으로까지 저변 확대하고 삶과 시의 경계를 허물고 위계화된 관계들을 전복적으로 사유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미적 정치성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이 연구는 노동시 읽기를 미학적 원리와 연결함으로써 노동시의 미학적 특질이 어떻게 정치성을 획득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전복하고 재창조하려 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본고는 이러한 1980년대의 노동시가 ‘구술성’을 통해 현장감과 공감을 확대했으며, 민중의 힘을 ‘노동하는 육체’로 알레고리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반복, 운율, 첨가와 첨언, 대구와 통사구문 등 언어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술성의 양상과 알레고리의 다양한 양식적 효과와 의미를 살필 수 있었다.

먼저 노동시의 구술성은 반복의 운율, 대화체의 활용 등을 통해 ‘읽는 시’에서 ‘듣는 시’로 담화적 국면을 강조한다. 대화체, 서간문, 방언을 통해 말하기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또한 비속어의 직접적인 제시를 통해 당대의 문학 관습을 조롱하고, 저항과 비판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둘째, 1980년대 노동시에는 노동자의 ‘육체’가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는데 이들에서 ‘육체’는 노동의 근원이 되는, 노동자만이 가진 특징이자 힘이다. 그것은 ‘미싱’, ‘지게차’, ‘망치’나 ‘툽’과 같은 다양한 노동의 도구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들은 주체와 객체

의 대립적 관계를 위반하고 기존의 통념이나 지식을 전복한다. 노동과 힘의 근원으로서의 육체는 노동시의 지향과 이상을 보여준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고 평등의 꿈을 확장하는 노동자의 힘이다. 노동의 힘은 세상을 뒤집고, 거짓 문학을 위협하며, 지식과 이성 중심의 관습에 도전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들 시에서 노동자의 육체는 절단되거나 훼손된 신체로 나타난다. 잘리거나 죽거나 혹은 사라져 버린 것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훼손된 육체는 자본의 폭력에 잠식된 노동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에 대한 도전과 비판, 극복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노동시의 시적 기법은 노동자의 각성을 이끌어내고, 노동자 혹은 노동 그 자체를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거침없는 구술적 언어와 현장어를 사용함으로써 삶의 구체성과 사실성을 확보하고, 시의 주제와 메시지를 보다 쉽고 익숙하게 전달한다. 또한 이들 시는 ‘육체’가 갖는 건강한 노동의 이미지를 각인한다. 노동시의 이와 같은 언어는 독자의 감응을 불러일으키고 그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게 하며, 나아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중적 효과를 지향한다.

1980년대는 이같이 새로운 문학장이 나타나고 문학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던 시기이다. 창작 주체의 변화에 따라 시의 주제나 소재, 나아가 형식, 표현방식, 효과의 기대지평 모두가 변화하던 때이다. 이 시기의 노동시는 단지 전통과 결별하여 미학적 실험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고 그 안에서 소외된 타자의 공간, 정체성, 의미와 말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80년대 노동시는 기존의 모더니즘, 문학의 엘리트주의, 민족주의적 서사를 부정하고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노동자라는 계급의 언어, 반엘리트적인 시어들을 창조해냈다. 새로운 감성적 분배에 참여함으로써 낡은 분배형태와 맞서 싸우는 예술의 정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 창작의 성과물이 비평을 선도하고 견인하면서 ‘풀빛’이나 ‘노동문학사’와 같은 노동문학 전문 출판사가 등장했고, 공식적인 등단 절차나 추천은 생각하지도 못한 노동자 시인이 나타났으며



통상적인 출판의 절차와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작품들이 서점의 구석진 곳에서 알려지고 판매되어 나갔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시가 이 모든 기존의 문학 관습을 전복하는 미학적 기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시단, 교육 현장에서 1980년대 노동시는 열외자이다. 주제성이나 시대적 의의만을 살필 뿐, 시의 대중성, 대중적 수사와 표현, 효과와 감성의 면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1980년대 노동시에 대한 형식미학적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이를 위해 각각의 텍스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미적 특질을 다면적으로 살피는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의 언어나 수사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1980년대 시를 주요한 교육 문화적 가치로 접근하고 그 역사적, 문학적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것이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이면서 형식미학적 연구를 통해 1980년대 노동시의 가치와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이는 또한 한 시대, 혹은 그의 미적 산물로서의 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박노해, 『노동의 새벽』, 풀빛, 1984.  
박영근, 『취업공고판 앞에서』, 청사, 1984.  
박영근, 『대열』, 풀빛, 1985.  
김해화, 『인부수첩』, 실천문학사, 1986.  
백무산, 『만국의 노동자여』, 청사, 1988.  
백무산,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딛고』, 노동문학사, 1990.  
정명자, 『동지여 가슴 맞대고』, 풀빛, 1985.  
최명자, 『우리들 소원』, 풀빛, 1985.

### 2. 참고자료

- 김경원, 「우리 시대 노동소설을 위하여」, 『문예중앙』, 1990. 252~263쪽.  
김나현, 「노동시의 상상과 에크프라시스」, 『비교한국학』 22권 3호, 2014. 84~113쪽.  
\_\_\_\_\_, 「노동시의 일인칭」, 『상허학보』 50, 2017. 195~221쪽.  
김난희, 「1980년대 노동시에 나타난 헤테로크로닉」, 『기호학연구』 59, 2019. 7~38쪽.  
김명인, 「지식인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전환기의 민족문학』, 풀빛, 1987. 62~109쪽.  
김병익, 「우리 문화: 가능성으로부터 실재화로」, 『열림과 일꾼』, 문학과 지성사, 1991.  
김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과 지성사, 1996.  
맹문재, 『한국 민중시 문학사』, 박이정, 2001.

- 박수빈, 「1980년대 노동문학 연구의 정치성」, 『상허학보』 37, 2013. 163~195쪽.
- 박현화, 「민중미술에 차용된 대중문화의 양상」, 『인문학연구』 42, 2011. 413~449쪽.
-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2.
- 백진기, 「노동문학, 그 실천적 가능성을 향하여」, 『민족민중문학론의 쟁점과 전망』, 푸른숲, 1989. 299~350쪽.
- 신승엽, 「노동문학의 현 단계」, 『전환기의 민족문학』, 풀빛, 1987. 154~195쪽.
- 양광준, 「1980년대 노동시의 수사 기법 연구-반복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8, 2010. 312~331쪽.
- 오윤정, 「한국 현대 리얼리즘 시의 양식 연구」, 『우리말글』 38, 2006. 303~327쪽.
- 유성호, 「노동시의 역사와 미학」, 『시작』 3권 2호, 2004. 92~105쪽.
- 이경수, 「해방 전후 안릉만 시의 노동시로서의 가능성과 특징적 표현 기법」, 『한국시학연구』 47, 2016. 79~114쪽.
- 이성혁, 「1980년대 노동시의 재인식」, 『실천문학』 82, 2006. 102~126쪽.
- 이병혁, 「한국인의 욕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8, 2006. 143~154쪽.
- 이훈, 「노동자소설을 위하여」, 『문학과 비평』 10, 1989. 351~363쪽.
- 장석원, 「리얼리즘 시의 발화특성: 반복, 열거, 관습적 비유와 가치평가적 수식어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43, 2012. 281~307쪽.
- 장성규, 「수행성의 미학을 위한 텍스트의 전략들」, 『한국현대문학연구』 44, 2014. 631~653쪽.
- 정유화, 「〈노동의 새벽〉에 내재된 노동의 기호론적 의미」, 『우리문학연구』 44, 2014. 731~758쪽.
- 정끝별, 「현대시에 나타난 알레고리의 특징과 유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 2003. 306~332쪽.

진은영, 「송고의 윤리에서 미학의 정치로」, 『시대와 철학』 20권 3호, 2009. 403~437쪽.

채광석, 「노동현장의 노동자」, 박노해, 『노동의 새벽』, 풀빛, 1984.

최현식, 「‘시적인 것’으로서의 노동과 성, 그리고 스타일: 백무산과 장정일의 시」, 『민족문학연구』 50, 2012. 194~230쪽.

황규관, 「‘노동시’가 남긴 것과 노동시가 가져야 할 것」, 『실천문학』 111, 2013. 214~227쪽.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최성만·김유동 역, 한길사, 2009.

조르조 아감벤, 『목적 없는 수단』, 김상운·양창렬 역, 난장, 2009.

\_\_\_\_\_, 『언어의 성사』, 정문영 역, 새물결, 2012.

자크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오윤성 역, 도서출판b, 2008.

\_\_\_\_\_, 『문학의 정치』, 유재홍 역, 인간사랑, 2009.

\_\_\_\_\_, 『불화』, 진태원역, 도서출판 길, 2015.

\_\_\_\_\_, 『프롤레타리아의 밤』, 안준범 역, 문학동네, 2020.

월터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

<Abstract>

## Politics and Rhetoric of Labor Poetry in the 1980s

Oh, Yoon-Jeo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ormal aesthetic characteristics such as language and rhetoric of labor poetry in the 1980s. The discussion begins with the following question: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on the mode and rhetoric of realism poetry, but formal aesthetics such as poetic language and rhetoric of persuasion in the 1980s labor poetry have not been studied in earnest.

The formal aesthetics of labor poetry in the 1980s is about the politics and aesthetics of literature. Jacques Rancière found the working principle of forming a political community in the realm of sensibility. He argues that politics and aesthetics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ng the sensible system”. The politics he speaks of is the process of distributing speech and noise, and the visible and invisible. Politics is controversial and fluid because it is constitutive and processive. The politics of literature is subversive in that reveals discord over the existing order and reconstructs the sensible system.

What is important is how the labor poetry in the 1980s tried to overturn the poetic order of the time, or how it responded to the role of poetry. And it's about how to create a politics of new sensibility aesthetically. At the same time, it has an orientation to achieve

---

\* Inha University

politics through aesthetic performance. It is about the change of the sensible system and about the sensible rearrangement of language. This is a strategy of anti-identification that denies the identification of dominant literature and elite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discover the politics of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from the formal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labor poetry. This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language of 'orality' and the allegory of 'body'. Orality resists the textuality for reading. To the labor poet, real poetry is a poem that tells the life of labor, a poem that tells the sensibility and language of workers, and a poem that directly reproduces the voice of the labor field. The orality of labor poetry emphasizes the fieldness of labor and plays the role of directly persuades readers to empathize and participate. On the one hand, the body is a unique and unrivaled image in the 1980's labor poetry. This is a major allegory showing the power of workers and the value of labor. The 'body' of labor poetry contrasts with the intelligence of modernism or the sensibility of lyric poetry.

The study of formal aesthetics on labor poetry in the 1980s is still in its beginning stages. It only looks at the theme or the significance of the times, while not looking closely at the popularity of poetry, popular rhetoric and expression, effects and emotions.

Key Words: 1980s Labor Poetry,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Jacques Rancière, Aesthetics, Politics, Orality, Body, Allegory, Rhetoric, Park No-hae, Baek Mu-san, Park Young-geun, Kim Hae-hwa.

1980년대 노동시의 정치성과 시적 수사 429

■ 논문접수 : 2021년 3월 21일

■ 심사완료 : 2021년 4월 19일

■ 게재 확정 : 2021년 4월 20일

